

'89년도 소값 안정대책

정 동 흥

농림수산부 축산국 대가측과

1. 일반 현황

가. 소값 및 소사육동향

예로부터 소는 농가에서 무엇보다도 귀중한 재산이요, 농사의 밑천이 되기도 하고 자식들의 혼사, 학비등 살림 밑천을 마련하는 소득원이 되어 왔다. 그간 우리나라는 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늘어나는 육류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쇠고기공급 부족과 소뿔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83-'84소값 파동이 일어났고 그이후 소증식에 의한 소값의 하락(84말~86)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87년부터는 서서히 소값이 올라 88년 하반기 이후 최근까지 큰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와같이 소값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은 쇠고기 소비자가 가격이 높아져 쇠고기 소비도 줄어들게 되고, 정부의 물가안정 측면에서도 큰 어려움을 주게 된다.

또한 도시의 유흥자본이 소사육에 투기를 조장하게 되며, 영세한 농가에서 기르던 소를 팔고 다시 입식하거나 소가 없는 농가에서 새로이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큰 어려움이 있을 뿐아니라 소증식에 의한 소값이 하락될 경우 값이 비쌀때 구입한 농가가 더욱 큰 손실을 보았던 교훈을 지난날 직접 경험한 바 있다.

1차산업에서 자급자족을 목표로 하는 분야에는 언제나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생산과잉과 과소의 위험성이 뒤따르고 이에 따라서 되풀이 되는 주기적인 가격변동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축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생산성이 짧은 돼지나 닭보다 소의 경우에 더 심화되고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는 현상이라고 본다.

'83년 이후 소사육동향을 보면 <표1>에서 보는바와 같이 '85년도에 최고로 2,943천두까지 사육하던 것이 점차 감소되어 지난 '88년말에는 902천두가 감소된 2,039천두(한우 1,559, 젖소 480천두)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값동향을 보면 <표2>에서 보는 바와같이 지난 '81~'83년의 소값파동(상승)시와 현재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그당시에는 소값의 이상적인 상승이 소입식 과열현상으로 이어져 소값도 큰암소와 암송아지가 주도하였으나 '88년 이후에는 국내산 쇠고기 공급부족으로 큰숫소 가격이 주도하고 있다.

또한 지난 '84년 11월까지의 암소도축을 제한하였고 소입식 자금도 정책적으로 지원되었으나 현재에는 농축협을 통한 입식자금의 대출억제와 높은 값의

송아지 입식을 자체토록 지도하고 있는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표 1〉 소사육 동향

	83	85(A)	86	87	88(B)	B/A
계	2,215천두	2,943	2,807	2,386	2,039	69%
한(육)우	1,940	2,553	1,923	2,370	1,559	61
꽃 소	275	390	463	463	480	123

〈표 2〉 소값 동향

		83최고치	85末(A)	86	87	88(B)	B/A
큰소	수	1,570천원	950	941	1,015	1,778	187%
	암	1,781	904	746	877	1,563	194
송아지	수	1,039	325	355	489	814	250
	암	1,093	223	192	310	594	266

나. 쇠고기 수급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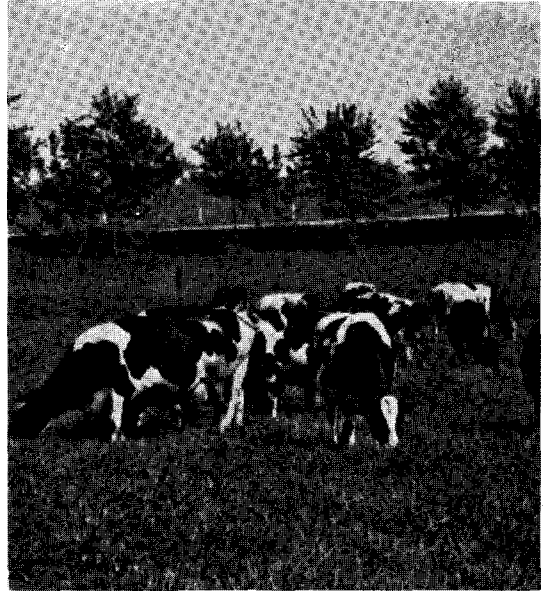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쇠고기 수요량은 쇠고기값과 쇠고기의 대체재인 돼지고기값에 따라 기복이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연도별 수급동향을 보면 쇠고기를 처음 수입하기 이전인 75년까지는 완전 자급 되었으나 76년에는 700MT의 쇠고기를 수입하여 99.1%에서 '83년에는 49.4천톤의 수입쇠고기가 공급되어 쇠고기 자급율이 57.2%로 최하위로 떨어졌다가 지난 84년 하반기부터 소값 하락으로 85.5월이후 88.7월까지 수입을 중단함에 따라 87년에 일시적으로 쇠고기 자급자족이 되었으며, 88년에는 92.9%(잠정), 89년에는 70%(추정)수준이 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 쇠고기 수입·판매 현황

○'88쇠고기 수입및 판매

88년도에는 수급조절용으로 고급쇠고기(H.Q.B) 6,435M/T과 일반쇠고기 7,350M/T, 관광호텔용



715M/T으로 총 97천두에 해당하는 14,500M/T의 수입계획량중 약 10,000M/T이 판매되고 4,500M/T는 89년도로 이월 되었다.

수입쇠고기 판매는 지난 9월18일부터 시작하였으나 초창기에는 수입쇠고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판매조직이 구축되지 아니하여 부진하였으나 11월하반기부터 서울·부산과 중소도시까지 전국적으로 판매되어 12월에는 1일 평균 1,993M/T(790두)이 판매되었다.

따라서 수입육 공급비율도 전국이 33~35%를 차지하게 되었고, 서울지역은 50~60%가 수입육으로 공급되었다.

○수입쇠고기 판매방법

수입쇠고기는 수급조절용(군납포함)과 관광호텔용으로 나뉘고 품질에 따라서 고급육과 일반육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수급조절용 고급쇠고기는 도매시장 경매와 축협, 한냉 대리점을 통하여 판매되고, 일반육은 지육의 경우에 도매시장에 상장, 경매 되고, 정

육은 포장육 원료로 축협과 한냉에 공급되고 있다. 또한 군납용은 축협중앙회가 국방부와 협의하여 물량과 가격을 결정하여 지역축협으로 하여금 납품하고 있으며 관광호텔용은 지난해부터 수입장구를 축산물유통사업단으로 일원화하여 필요한 양만큼만 수입하여 관광용품센터로 하여금 공급토록 하되 송아지고기등 특수품목은 수입원가에 판매제비를 감안한 가격으로 일반품목은 도매시장 경락가격 기준으로 판매하고 있다.

○수입쇠고기 판매상의 어려움점

수입쇠고기는 가격이나 품질은 좋은 편이지만, 정육(뼈없는 고기) 형태로 수입되는 경우 뼈, 꼬리, 족 등의 부산물이 없고 냉동된 상태이므로 신선육에 비하여 선호도가 떨어지고 내외부에 지방질이 많다는(한우보다 10~15%정도) 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수입쇠고기를 판매할 경우 거래손님이 찾아오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우고기와 구분판매를 하지 아니하고 혼용판매를 하므로써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입쇠고기 구매처가 없다는 것이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

2. 소값안정의 문제점

가. 소사육두수 감소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88년말 소사육두수는 쪼트소까지 합하여 2,039천두로서 83년보다 176천두, 85년 최고치 보다는 무려 904천두, 87년보다도 347천두가 줄어 들어 근본적으로 시장출하가 감소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다.

나. 수입 쇠고기 판매 미정착

수입쇠고기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향상되었으나

아직도 미흡하여 수입고기 확대 방출에도 소값은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수입쇠고기의 고정 판매망이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보여지며 쇠고기 수입 및 판매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다.

3. 소값안정 목표

정부에서는 올들어 계속 오름세에 있는 산지소값을 둔화시켜 올상반기까지 큰 솟소(400kg)기준 160만원대에서 유지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가격안정대 수준으로 정착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여 지난 1월7일 발표하였다.

소값을 안정시키는 것은 소사육기반을 조속히 구축하여 양축농가의 소득기반을 공고히 하고 소비자에게도 값싼 쇠고기를 공급케 하므로써 결과적으로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계시켜 모두를 이롭게 한다는 배경이 담겨져 있다.

이번에 발표된 160만원이라는 것은 과거 소값변동 추정 함수식에 의한 추정치를 전망한 것이며 상반기까지 유지 목표가격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쇠고기 가격 안정대 수준에서 정착 시킨다는 것이므로 160만원을 가격안정대로 오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4. 소값안정 추진대책

가. 당면대책

○부족한 쇠고기의 수입및 공급확대

89년도 쇠고기 수입계획을 보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88년의 141천톤보다 3.5%가 감소된 136천

톤으로 이중 70%에 해당하는 95천톤은 국내산으로 충당하고 부족되는 41천톤(275천두)은 수입육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당년에 수입하는 물량은 전년도 이월된량과 내년도에 이월될량을 감안하여 우선 39천톤(261천두)으로 정하여 발표하였다.

에 상장 경매방법으로 공급하는 한편 정육은 관광호텔 및 대량실수요자용으로 필요한 양에 한하여 수입키로 되어 있다.

또한 일반육은 지육으로 수입되어 축협과 한냉의 포장육 원료와 수입육 전문판매점에 공급되어 판매된다.

〈표 3〉 '89 쇠고기 수급계획

수요	공급 (소비기준)				합계	당년 수입
	국내산	수입	수입	수입		
136.0 ^{천톤} (865) ^{천두}	95.0 (581)	4.5 (30)	36.5 (245)	41.0 (275)	136.0 (856)	39.0 (261)

88년도에 수입한 바 있는 미국산 고급정육은 국내 수요가 많은 부산물(뼈) 부족으로 도매시장과 소비시장 여건에 부합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여 금년에는 고급육도 지육위주로 구매를 전환하여 도매시장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 육성

수입쇠고기의 한우쇠고기와의 혼용판매를 방지하고 판매조직을 확충하므로써 수입쇠고기 확대 방출로 조속한 소값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소비자가 수입쇠고기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축협과 한냉주관으로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을 서울, 부산지역에 400개소를 설치하고 이외의 직할시, 도청소재지 등에도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을 설치하는 등 총 1,000여개소로 늘리기로 하고 구정을 대비하여 서울, 부산지역은 1월 16일부터, 기타지역은 1월



23일부터 수입쇠고기 판매를 개시토록 되어있다.

이번에 선정되는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에서는 국내산 쇠고기는 판매할 수 없으며 수입쇠고기와 돼지, 닭고기등 축산물과 가공식품은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판매가격은 축협중앙회에서 수입원가와 판매제비를 감안하여 정육판매가격을 500g 당 3,200원으로 결정하고 포장육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중등육 기준 500g 당 2,900원으로 공급키로 하였다.

또한 수입쇠고기가 판매초기 단계로서 소비자에게 인식이 미흡한 실정에 있으므로 소비자에게 직접판매가 쉬운 슈퍼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축협 한냉이 전국슈퍼체인협회와 협의하여 전국 400여개소에 달하는 슈퍼마켓에 수입쇠고기 포장육코너를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저렴한 수입쇠고기 포장육을 판매하므로서 조속한 시일내에 소값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한우의 생산성제고와 번식기반 구축을 위한 한우 개량단지 사업을 작년 32개소에서 금년에는 64개소로, 90년도까지 100개소로 늘여 나가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양축자금의 지원확대를 위하여 200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지원 규모가 704억원에서 904억원으로 늘리며

○소 및 쇠고기 유통개선을 위하여 가축경매시장도 94개소에서 91년까지 135개소로, 축산물공판장도 9개소에서 93년까지 12개소로 늘여나가는 한편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쇠고기 부위별 차등가격제도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5. 맺는 말

우리경제는 그간 지속적인 수출호조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86년에는 처음으로 무역의 경상흑자를 나타냈으며 '88년에도 100억이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같이 무역이 흑자를 나타내고 있는것은 경제적인 면에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나라경제의 발전은 상공업 중심이었지 농업수산분야는 외국과 비교해 볼 때 아직 유치산업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영농규모의 영세성과 자원이 부족하여 가축사료의 경우에도 70-80%가 수입되고 있으며 여기에다 종축과 각종 약품원료까지도 수입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여건하에 있다.

이러한 실정하에서 국제적인 경제의 개방외교 압력까지 가중되고 있다.

쇠고기의 경우만 해도 88년 7월이후 제한적으로 수입이 재개되었으나 자유화 압력이 계속되고 있으

며 현재 미국, 호주, 뉴질랜드로부터 쇠고기 수입 제한에 대하여 가트(수입,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에 제소되어 심의중에 있다. 어제의 원조국이 오늘의 경쟁국이 되고 어제의 우방국이 오늘의 적국이 되는 무서운 외교상황하에서 이제까지 수입제한으로 보호해온 농축산물에 대한 개방압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이러한 문제는 농민의 시위나 정부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제3의 팀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다.

쇠고기에 대해서는 다수 영세농가의 유일한 소득원이 되고, 국가적으로도 완전자급을 기대하기는 어려워므로 국내 공급이 부족한 일정 물량은 수입하여 외국의 통상문제를 해소하고 국제적 개방화시대에 부응해줌으로서 전체적인 국가경제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소사육업을 건전한 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의지하에 국내적으로는 적정한 소값 유지를 위한 쇠고기 가격 안정대체를 마련한 바 있으며

이를 조기에 정착시켜 양축 농가가 안심하고, 소를 사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소값이 큰폭으로 상승할 경우에는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 힘을 합쳐서 소값을 안정시키도록 협조하여야 한다고 본다. 양축농가에서는 이와같은 정부 보호 시책이 반듯이 자기의 소득을 보장해준다고 보아서 안된다. 앞으로의 소사육을 현가격하에는 소 증식에 의한 가격 하락현상이 또다시 오지않는다는 보장은 누구도 할 수 없으며 앞으로의 국제 사료 곡물 시세와 앞서말한 쇠고기 개방압력등을 감안할 때 아무리 제도적으로 좋은 방안이 있다해도 안심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이 기회에 생산성을 증대시켜 나가고 초지등 사료자급기반 조성과 경영 개선을 통한 생산비를 낮추는 등 국제 경쟁력을 꾸준히 길러 나가는 것이 현명한 생각이라고 본다. ■

토막소식

삭제는 왜 필요한가

소는 600kg이나 되는 몸을 작은 발굽으로 지탱하고 있다. 네다리의 선단에 있는 발굽이 지나치게 자랐던가 모양이 비뚤어지면 체중을 지탱하는데 편중(偏重)이 생겨 곧 발굽바닥과 바닥뒤꿈치에 무리한 압박이 가하여지게 된다. 그리고 발굽병에 걸릴 염

려와 몸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어진다. 그렇게되면 아무리 사료에 신경을 써도 유량(乳量)의 증가는 바랄 수 없다고 단언하여도 좋을 것이다. 그와같이 젖소에 있어서는 발굽은 중요한 곳이다. 삭제는 지제(肢蹄)의 질병, 손상 및 발굽모

양이 변해져가는 것을 예방한다. 또한 이를 보호 교정(矯正)하면 젖소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책을 참고하여 4개월 마다 실행하여 주기 바라는 바이다. 적어도 1년에 두번의 삭제를 이행 하는것이 좋다.